

플랫폼 경쟁력 키우는 선진국 규제·역차별 등 족쇄 채우는 韓

美·中 등 자국기업 육성 주력 韓, '플랫폼 진흥법' 중요성 커져 "규제 아닌 발전을 논해야 할 때"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자국 플랫폼 기업 보호·성장을 위한 정책을 펴는 반면 한국은 역차별 등 오히려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 등 17개 법안(1월25일 기준)이 모두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규모 유통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도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스타트업언라이언스는 '규제에 관한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 이슈페이퍼



스타트업언라이언스 '규제에 관한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 이슈페이퍼

자 단체 구성, 분쟁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 유형'은 특정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대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혼합 유형'은 거래 공정화와 독점규제 두 유형을 결합,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지정 및 금지 사항 뿐만 아니라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스타트업언라이언스 정주연 전문위원은 "모든 유형의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거래 공정화 유형'의 경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과도하게 경직시키는 규제 방식은 다수 당사자와의 신속한 거래를 중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본질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전문위원은 또 "독점규제 유형'에서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 방식 규제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해외 사업자는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의 지표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힘들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자료과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 플랫폼사업자들만 규제가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기업 성장의 한계점을 설정해 혁신 의지 저해 우려 ▲'경쟁제한성 추정·입증 책임 전환'은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 ▲'임시중지명령' 도입시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 제약 우려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플랫폼 생태계 문제를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시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언라이언스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 비전 및 전략을 담은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제정을 위해서 반드시 정교한 실증적 분석과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스타트업언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지금도 규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오른쪽 2번째)이 지난 3일 세종시 기정원에서 부득라이(Vu Duc Loi)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장(왼쪽 네번째) 등 베트남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정원

기정원, 베트남에 스마트공장 기술 전수

대표단 8인 초청... 양국 협력 증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베트남에 스마트공장 기술을 전수한다.

기정원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지난 3일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XuanCau Holdings, IGD 등 총 8인으로 구성된 베트남 대표단을 초청해 스마트공장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양국 교류 증진 및 상호협력을 위한 교류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베트남 스마트공장 ODA 사업 추진현황 ▲국내 스마트공장 적용 및 성과 사례 ▲한국·베트남 간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한국의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한·베트남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광현 추진단장은 "그간의 한국 디지털 전환 정부 지원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VKIST와 협의해 스마트 공장 ODA 사업의 지원모델 중 하나인 베트남 데모실증센터 구축을 VKIST 부지를 활용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올해 베트남 스마트공장 ODA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베트남 데모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의사결정 기반도 마련한다.

/김승호 기자

LX판토스, 美 JV '박스링크스' 설립

(조인트벤처)

日 ONE 합작... 운송시장 본격 공략

LX판토스가 글로벌 6위 선사인 일본 ONE(오션네트웍스익스프레스)와 미국에 물류 합작법인(조인트벤처·JV) '박스링크스(Boxlinks)'를 설립하고 미국 내륙운송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한국 물류기업이 일본 최대 선사와 미국에 JV를 세운 것은 처음이다.

4일 LX판토스에 따르면 JV의 지분은 LX판토스가 51%, ONE가 49%를 보유한다. 양사는 지난 2023년부터 북미 물류시장 공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이후 약 2년 간의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최근 JV설립을 완료했다.

양사는 JV 박스링크스를 통해 미국 내 인터모달(intermodal)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항만을 통해 미국 내륙으로 운송된 ONE의 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확보, 빈 컨테이너를 활용해 철도와 트럭 운송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사진)는 "국제운송과 내륙철도를 연계한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 고도화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AI·AX 스타트업 육성... 1.5억 지원

20개社 선발... 25일까지 신청 접수 '초격차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지속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성장 분야인 인공지능(AI)·인공지능전환(AX)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기부는 'AI 핵심 분야 및 유망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공고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 중 올해 신설한 1단계 '마이크로 초격차'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고로 총 20개의 유망 AI·AX 스타트업을 선발한다.

소형언어모델(sLLM), 제조·바이오·콘텐츠 등 AI 스타트업 5개사를 선발해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기술사

업화 자금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인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보유한 GPU 기반 AI 컴퓨팅 자원, 실증센터 등의 인프라 활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제조, 바이오, 콘텐츠 등 3대 분야에서 대·중견·중소기업 등 수요기업의 제품·서비스에 적용 및 고도화할 수 있는 혁신 AI 기술을 보유한 AX 스타트업 15개사를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협업 자금 8000만원과 신규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5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 사업에 선발된 스타트업 중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은 다음 단계인 '초격차 스타트업' 사업으로 연계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관련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대기업과 유망 국내 AI 스타트업 간 수요기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유도하고 판로를 확보해주는 'AI 초격차 챌린지'를 이달 말에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는 LG전자와 함께 '온디바이스 AI' 분야 디바이스 제품을 기존 노트북에서 TV 등으로 협업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웰컴 코리아와 신규로 '버티칼 AI' 분야에서 협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 신규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2 | 해질 / 18:00

2월 5일 (수)
음력 : 1월 8일

수도권 날씨
-12 ~ -5°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16/-6, 동두천 -15/-5, 가평 -15/-5, 파주 -16/-6, 서울 -12/-5, 양평 -15/-5, 인천 -12/-5, 수원 -12/-5, 용인 -12/-5, 평택 -13/-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日증시, 美 관세 부과 유예에 상승... 닷케이지수 0.72% ↑
▲트럼프, 머스크 억제 나서나... "통제받지 않은 권력 가진 것 아냐"

▲"영국, 트럼프 관세 부과시 보복 대응계획 수립해 검토"
▲중국,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美 관세 대응



▲5년 만에 EU 정상회의의 참석한 영국... "아심찬 안보 협력 원해"
▲"중국서 미사일 추진제 원료 실은 선박 이란행"